

“새만금 핵심사업 예산 부족”

김관영 도지사, 호남권-與 예산정책협의회서 호소... 전북 현안 해결 위한 협조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이 이룬 성과들을 강조하며,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들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각 지역 지자체장도 함께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전북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10조2,000억원 투자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 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의 성공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은 지난 7월 18일 VIP 민생 토론회에서도 건의 및 논의

된 만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늘 예산이 부족해 지역 숙원,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호남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협력해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답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SOC와 이차전지,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등 예산 반영이 안 된 것들을 국회 증액 단계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추경호 원내대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HUG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 '단 2건'

민주 이춘석 의원 “지역별 주택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필요”

지방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1만 7천 호로 내려갔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 1,822호로 늘어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해 14건 1조 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 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 7,833호로 인구 대비

0.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호가 미분양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만 70호), 제주 0.37%(2,482호), 강원 0.34%(5,172호), 경북 0.30%(7,674호), 충남 0.24%(5,025호), 울산 0.22%(4,288호), 전남 0.21%(3,738호) 등 순으로 높았다.

중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남이 2,502호로 가장 많았고, 대구 1,778호, 경기 1,757호, 경남 1,753호, 제주 1,369호, 부산 1,352호, 경북 1,239호 순이었다.

중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물량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최근 10년간 중공 후 미분양은 2019년 12월 1만 8,065호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어들었으나, 올해 7월 1만 6,038

호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정부가 HUG를 통해 5조 원 공급을 목표로 미분양 대출 보증을 출시했다. 미분양 대출 보증은 PF대출을 갖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이 HUG 보증으로 금융권의 차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HUG 미분양 PF대출 보증 한도를 전염연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확대 방안 중)을 발표했지만, 지방 사업장의 경우 신규 PF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워 보증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최근 6년간 발생 승강기 중대사고 2건 중 1건 법정 안전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 민주당 한병도 의원 “검사주기 재검토 필요”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갑)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

대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

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2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전남 8건(사망 3명, 부상 7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민 만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늘 예산이 부족해 지역 숙원,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호남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협력해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답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SOC와 이차전지,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등 예산 반영이 안 된 것들을 국회 증액 단계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 및 환경생태 용지 조성 △국회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 예술 콤플렉스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내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단계 총력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 30일 개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는 30일 10시 30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자리로,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영호남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의회, 행정감독 위원장에 김명갑 의원 선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 24일, 제29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열고 위원장에 김명갑 의원(사진)을, 부위원장에 송동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11월에 개최하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명갑 위원장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안 사업과 각종 추진사업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송동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안군 행정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우라 의원은 마령면 원평지 들소리 농요 발표 및 지원대책과 진안군 관행적 업무의 다이어트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이번 군정질문 및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진안=유태만 기자

의료 인력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기피 현상 심각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 집중 박희승 의원 “정부 필수 의료패키지, 정확한 진단 필요”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한 반면,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굳어지고 있어, 보건과목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결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정원 확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사망 등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출생 심화에 따라 전담이 어려운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진다.

앞서 2018년까지 정원의 100%를 충원해 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작년에는 25.5%까지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 확보율은 30.9%에 그쳤다.

또 가정의학과는 2018년에는 96.8%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2019년 81.7%, 2020년 66.8%, 2021년 50.6%, 지난해에는 48.1%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53.6%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매년 90% 넘는 정원

확보율을 보이던 산부인과 조차도 2018년 80.3%에서 2022년 68.9%로 거듭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1%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는 고착화되고 있다. 연례적으로 확보율이 낮았던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핵의학과(25.9%), 흉부외과(47.6%), 방사선종양학과(66%), 병리과(67.1%) 등으로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명 ‘피안성’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인기는 여전히 굳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기간 평균 확보율은 피부과(99.9%), 안과(99.3%), 성형외과(99.6%)로 순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 하반기의 경우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인턴은 정원 2,525명 중 15명(0.6%), 레지던트는 정원 5,120명 중 58명(1.1%)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박희승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의 필수 의료패키지가 반발만 불러일으킨 채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최소한 임기 내 추진해 나갈 우선순위의 대상 및 연도별 재원, 재정 확보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 해결 앞장

김대중 도의원, 익산 평화동 3중계 펌프장 방문 실태 조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신)은 24일 익산시 평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3중계 펌프장을 방문해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대중 도의원을 비롯해 도 생활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시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악취 피해 주민, 펌프장 관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수년간 익산시 평화 제일아파트 인근 펌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녁 시간대 발생하는 강한 악취로 주민들은 악취 전광판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악취 기술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개선 작업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관계기관과 합



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부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도와 시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악취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악취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착수보고 업무 청취

최형열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사무실에서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명품삼천천변길 조성사업) 착수보고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삼천 세내 역사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삼천 세내교~효천교 일원의 삼천 천변길에 지역 문화공간 조성, 수변 여가시설 조성, 하천 경관개선을 기본구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삼천천변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